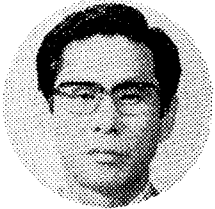


洪性佐 特許廳長 귀국

WIPO 조정위원회 參席 후



洪性佐 特許廳長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世界知的 所有權기구(WIPO) 조정 위원회 參석후 지난 9월 30일 귀국했다.

工業所有權 國際會議 계속열려

파리同盟總會, PCT總會, WIPO調整委員會등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工業所有權에 관한 國際會議가 계속 열렸다. 工業所有權에 관한 파리同盟條約總會, 特許協力條約(PCT)總會, 世界知的 所有權機關調整委員會, 美·日·歐 3個 特許廳長會議가 열렸다.

이번 會議의 參席者들은 各國의 特許廳長官급이 參석했으며 우리나라도 洪性佐 特許廳長을 代表로 한 代表團이 參席했다.

이번 國際會議중 파리同盟總會, PCT總會, WIPO調整委員會가 24일부터 2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本部에서 열려 WIPO事務局에서는 개별 회의가 열렸으며, 28일에는 同盟全體會議가 열렸다.

<파리동맹총회>

파리同盟總會는 條約改正先進工業國, 開發途上國, 社會主義 3個그룹 代表者會議 新設 등이 討議되었으며, 工業所有權國際交流 規則을 規定한 파리條約의 一部改正 問題를 둘러싸고 지금까지 4차례에 (80.1. 제1차회의, 81.9월 제2차회의, 82.10월 제3차본회의, 82.11 제3차추가회의)에 걸쳐 外交會議가 소집되었으나 各 그룹간의 利害가 對立되어 유회되어 왔다.

지금까지 開發國은 特許權의 保護에만 注重된 現行 制度를 補完特許의 實施를 強化하고 이러한 實施를 통하여 開發國의 技術開發을 促

進하고 技術移轉을 넓혀가야 한다는 主張이 先進國과 對立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3개 그룹 代表者會議의 設立으로 充分한 事前 調整을 통해 條約改正內容이 제5회 改正外交會議에서는 타결될 것으로 外紙들은 전망하고 있다.

<PCT총회>

이번에 열린 PCT 總會는 加盟國間의 特許手數料 引上에 따라 國際料金制度의 改正, 特許事務處理의 電算化를 통한 出願節次 改善問題가 檢討되었다.

<WIPO調整委員會>

이번 WIPO調整委員會에서는 A·북시 事務總長의 임기가 내년 滿了됨에 따라 人選問題가 論議될 예정인데 A·북시 事務總長이 유임될 전망이다.

<美·日·歐特許廳長會議>

10월 1일과 2일 場所를 輪한 유럽특허청으로 자리를 옮겨 美·日·歐 特許廳長官 會議가 개최됐다. 이 會議에서는 特許審査의 컴퓨터化에 대한 進行상황보고, 審査協力 등에 대해 論議되었다. 또 이들 特許廳에 출원되고 있는 첨단 기술분야의 발명에 대한 審査資料交換이 論議되었는데, 日本과 유럽은 先願主義의 法制度下의 국가들은 特許査定前 資料의 公開가 비교적 容易하게 되지만 美國의 경우는 先願主義를 취하고 있어 美國이 審査資料交換에 얼마나 적극성을 보일지에 力點을 두고 있다.

<기타會議>

이와같은 政府間의 會議 以外에 世界的인 民間科學技術情報機關이 參加하는 特許情報 박람회와 世界特許情報센터의 共同會議가 금년 말 제네바와 빈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特許行政 現代化 長期事業 推進

—85년부터 91년까지—

特許行政現代化長期事業이 施行된다.

最近 特許廳은 지난 9월말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개발협력상설위원회에 참석한 洪性佐 特許廳長등 우리나라 代表團은 WIPO 지원사업으로 추진중인 우리나라 특허청 현대화 5개년 사업(80~84)이 올해로 끝남에 따라 새로운 특허행정 現代化 장기사업을 내년부터 91년까지 7년간에 걸쳐 실시키로 WIPO와 합의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올해 안에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UNDP자금으로 추진될 이 새로운 特許行政 現代化 장기사업을 통해 마드리드 협정, 니스 협정, 부다페스트협정, 헤이그협정 등 미가입 공업소유권 관련 국제기구 가입, 특허행정 업무의 전산화 제고,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저작권보호문제 등을 해결함으로써 特許行政을 先進國水準으로 끌어올릴 方針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法制 및 行政體制의 정비, 調査 및 審査方法의 向上, 産業界에 대한 技術情報體制의 확립 등을 목표로 한 장기사업은 우리나라 特許制度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판단, 審査, 審判, 情報管理, 法制整備, 出願, 登錄 등 각 분야별 전문위원을 선정, 본격적인 사업계획을 착수할 方針이다.

標準不登錄商標 事例集 發刊

本會서도 發刊 配布

特許廳은 最近 「標準不登錄商標 事例集」을 發刊했다.

이 事例集은 그동안의 商標法을 適用하여 운영하여온 다수의 判例, 審決例 및 審査例 중에서 不登錄事由가 明白한 事例를 발췌하여 法條項別, 商品類別로 分類整理했다. 이 事例集은 모두 58件을 事例로 들고 있는데 本會에서도 이달중에 發刊, 會員에게 提供할 計劃이다.

PCT 特許出願 1 호

신차영씨, 美등 4國에

지난 8월 10일 우리나라가 PCT(특허협력조

약)에 정식 가입한 이후 PCT방식을 이용한 최초의 국제특허출원이 特許廳에 접수됐다. 特許廳에 따르면 국내의 개인발명가인 신차영씨(서울 성동구 화양동 167의44 화양연립주택 가동 602호)가 최근 PCT 방식이용 국제특허출원서를 特許廳에 출원(대리인 孫銀震변리사)했으며 출원국은 美·日·西獨·프랑스등 4개국이다. 신씨가 출원한 特許 기술은 완구 계통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외국어는 英文번역문을 제출했다. 그런데 PCT출원방식을 이용할 경우 종래의 개별국가별 출원 대신 PCT 가입국중 출원희망국을 기록, 自國 특허청을 통해 동시 출원할 수 있으므로 출원비용을 절감하고 출원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特許情報공동활용체제 마련

特許廳, 컴퓨터로 자료수신 가능케

特許廳은 최신 특허기술자료를 기업체에 신속히 제공키 위해 오는 86년부터는 특허정보 공동활용체제를 수립할 계획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를 위해 1단계로 금년말까지 상표검색과 유사상표검색, 출원번호 통지서 및 출원대장 작성, 심사 처리 자동기록 작업등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2단계인 85년에는 특허 실용신안의 IPU(국제특허분류)별 출원검색을 완료하게 되며 3단계인 86년부터는 기업체에 컴퓨터 단말기를 설치, 중앙 컴퓨터에 수집 분류된 특허정보 자료를 각기업체에 신속히 제공키 위한 시스템을 확립할 계획이다.

◇ 本會 人事 ◇

- ▲ 張善基(調査資料部 弘報課長에 임명)
(9월 25일자)
- ▲ 白鉉兌(發明振興部 振興課長 퇴직)
(10월 11일자)